



# 사랑의 메아리

교황청 재단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 KOREA ◆ 2019년도 제6호

معزية

عذراء

السوريين

الآلام



Icon made by Fr. Spiridon Kabbash and blessed by Pope Francis

“어머니, 저희의 **신앙**을 도와주십시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음성과 부르심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저희의 귀를 열어 주십시오.”

- 프란치스코 교황, 훈칙 「신앙의 빛」(Lumen Fidei) -

#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ACN이 고통받는 시리아의 그리스도인을 위해 주도한 기도 캠페인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Console My People)에 함께하며 목주 6천 개와 성모 마리아 이콘을 축복하는 프란치스코 교황

우리가 고대하는 주님 성탄 대축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 축제는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을 가족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여정 동안 성탄 축제의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성탄을 기억합니다. 이 시대는 그와 반대되는 것을 받아들이라고 우리에게 종용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정신과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누인 구유에 모여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신 기적을 기념하고자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대부분 최대의 명절로 꼽히는 성탄 축제를 가족과 함께 지내게 될 것입니다. 왜 부활 대축일이 아니라 성탄 대축일을 최대의 명절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무래도 우리에게 고난과 부활보다 탄생과 가족이 더 쉽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이겠지요. 하지만 성탄과 부활은 모두 우리 신앙의 바탕이며, 이 둘이 반드시 함께 작용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신앙의 선물'을 통해 이러한 지식과 사랑을 함께 나눕시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받는 형제자매들도 성탄을 기쁨과 평화와 빛의 축제로 맞이할 수 있게 합시다.

여러분께서 복된 성탄을 보내시길 기도하며, 여러분의 관심과 도움의 손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미사 중에 사도신경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라는 구절을 낭송하며 고개를 숙여 깊은 절을 합니다. 주님 성탄 대축일 미사에서 이 때 무릎을 꿇기도 합니다. 성탄의 신비는 우리 신앙의 중심입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지 않으셨다면,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무지한 사람이거나 다름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신앙인은 지식 계층의 조롱을 받았을 것이고, 신앙은 사람을 무지의 늪에 가두고 주체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반지성적 행위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정반대입니다. 신앙은 참된 빛입니다. 신앙은 이성을 거슬러 공허함 속으로 뛰어드는 맹목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신앙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행위입니다.**

모든 이를 비추는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 빛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요한 12,46 참조). 신앙의 빛은 그저 한순간 마음을 따뜻하게 해 주거나 개인적인 위안을 가져다주기만 하는 주관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신앙은 구체적인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며 사람이 되신 성자의 말씀과 행위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느님은 당신을 만나는 사람에게 한없이 큰 사랑을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삶의 어떤 순간에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전체를 밝혀 줍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사랑이 참되며 그 사랑에서 모든 좋은 것들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모든 현실에 새로운 논리를 부여하는 지식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참된 하느님 사랑의 진리만이 사람들에게 희망찬 미래를 맞이하는 자신감을 줄 수 있습니다. 신앙은 사람이 우리를 언제나 앞선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안에서 우리 자신을 통해 실현되는 하느님의 가장 근본적인 선물입니다. 신앙은 모든 것을 설명하는 위대한 진리입니다. 그러니 진리에 대한 이 모든 이야기가 실로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진리가 자유를 억압하나요? 아니지요. 성탄의 신비와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계시된 신앙은 폭력이 아니라, 다른 이를 위한 봉사를 실천하게 합니다. 또한, 이성과 양심과 진심을 호소합니다. 참된 신앙인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합니다. 겸손한 신앙인은 자신은 사랑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그를 둘러싸고, 그를 소유합니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탄은 우리가 기쁨과 신앙을 새롭게 받아들여 더욱 큰 기쁨의 삶을 살며 서로에게 신앙의 선물을 풍성하게 나눌 수 있게 해 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모두에게 복된 성탄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ACN 수석대표  
토마스 하이네겔던  
*Thomas Heine-Geldern*



ACN 지도신부  
마르틴 마리아 바르타 신부  
*Fr. Martin Maria Barta*



# 하얀 편지 봉투

1982년 미국에서, 낸시 W. 개빈

그것은 단지 크리스마스 트리 가지에 걸어 두는 작고 하얀 편지 봉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주소도, 그 어떤 설명도 없었습니다. 이 편지 봉투는 제 남편 마이크가 크리스마스 시기만 되면 나타나는 폭리, 과소비, 소모적인 요구와 경쟁 같은 쓸모 없는 모습을 참지 못한 데서 시작했습니다. 마이크는 결국 자신의 숙부 해리에게 선물할 넥타이와 할머니에게 선물할 화장품을 골랐지만, 이 선물조차도 다른 대안이 없어서 선택한 것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직 마이크만을 위한 특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뜻밖의 곳에서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12살이었던 아들 케빈은 학교 주니어 레슬링부에서 활동 중이었습니다. 성탄 대축일을 며칠 앞두고 케빈이 속한 레슬링부는 시내의 한 성당에서 후원하는 팀과 친선 경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흑인들이 많았던 상대 팀 선수들은 구두끈으로만 묶은 너털 너털한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파란색과 금색이 섞인 멋진 유니폼과 새로 산 레슬링 신발을 신은 우리 아이들 팀과는 극명하게 대조됐지요. 경기가 시작되자 더 놀라운 모습이 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상대 팀 선수들은 머리를 보호할 장비도 하나 없이 가벼운 귀 보호대 하나만 걸치고 경기에 나섰던 것입니다. 분명 이 팀은 가난하여 아이들의 장비에 많은 투자를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케빈의 팀은 상대방을 압도했고 모든 체급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경기에서 패배한 한 선수가 매트에서 일어나더니 마치 자기가 졌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라도 하는 양 찢어진 옷을 입고 경기장을 의기양양하게 활보했습니다. 제 옆에 앉아 경기를 지켜보던 마이크는 슬프게 고개를 흔들며 “저 친구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이겼으면 했는데, 저 아이들에게도 가능성이 많은 텐데 저런 식으로 지는 것은 아주 안 좋은 일이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 남편은 모든 아이를 사랑했습니다. 작은 축구팀과 야구팀에서 아이들을 지도해 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지요. 그 말을 들으니 제 머릿속에 멋진 크리스마스 선물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 근처에 있는 스포츠용품점에서 레슬링 신발과 보호 장비를 사서 익명으로 시내 성당에 후원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저는 하얀 편지 봉투 안에 제가 한 일들을 적어 두고 트리에 걸어 둔 다음, 남편에게 이

것이 저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때 마이크의 얼굴에 피어난 밝은 미소는 그 해 크리스마스는 물론 이듬해까지 제가 볼 수 있었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크리스마스 때마다 남편에게 이렇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한 해는 지적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 하키 경기 관람을 후원하고, 또 다른 해에는 나이가 많은 언니 부부에게 수표를 보냈습니다. 언니의 집이 크리스마스 1주일 전에 화재가 나서 전부 타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하얀 편지 봉투는 어느덧 우리 가족 크리스마스의 하이라이트가 되었습니다. 하얀 편지 봉투는 언제나 가장 마지막에 개봉하는 성탄 선물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빠가 크리스마스 트리에서 하얀 봉투를 꺼내서 그 안에 적혀 있는 내용을 읽을 때면 새 장난감조차 잊고 기대에 가득찬 모습으로 두 눈을 크게 뜨고 서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물질적인 선물은 좀 더 실용적인 것들로 변해 갔습니다. 하지만 하얀 편지 봉투만은 특유의 매력을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1981년에 제 남편은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탄이 다가왔고, 깊은 슬픔 속에 겨우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밀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브날 트리에 하얀 편지 봉투를 올려 두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세 개나 더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마다 아버지를 위한 하얀 편지 봉투를 걸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 가족의 이 작은 전통은 계속 이어졌고, 우리 손자들에게까지 전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손자들도 똑같이 기대에 찬 모습으로 두 눈을 크게 뜨고 자기 아버지가 크리스마스 트리에서 봉투를 꺼내는 모습을 지켜볼 것입니다.



###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사랑은 가장 근본적인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합당치 않으나 받은 모든 것들이 사랑을 통해 비로소 ‘선물’이 됩니다.

ACN은 지난 몇 년 동안 시리아의 그리스도인 어린이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어린이 17,806명에게 각각 2만 원 상당의 선물이 들어 있는 꾸러미를 전달합니다. 알레포, 홈스, 하사카, 다마스쿠스, 호란 지역에 사는 여러 그리스도인 가정의 어린이에게 이 선물은 오직 하나뿐인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것입니다. ACN은 이 성탄 선물 꾸러미가 일종의 ‘하얀 편지 봉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 미사 예물

### 선물하시는 하느님

하느님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십니다. 창조주께서는 당신의 피조물에게 모든 것을 내어 주십니다.

사제는 성체를 통해 이 땅에 그 선물을 가져오는 사람입니다. 사제가 없다면 그리스도의 몸은 이 세상에 있을 수 없을 것이고, 사제의 축성받은 손이 없다면 하느님께서 사람들 사이에 참으로 존재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사제가 하느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응답하지 않는다면 성변화는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제를 돕는 이가 바로 교회를 돕는 사람이며, 그 어떤 상황이나 고난에도 하느님의 존재가 현실이 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는 내 몸이다.”라는 말은 세상을 바꿉니다. 이는 베네수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산 카를로스 교구의 에르난, 로

돌포, 오스왈도, 페드로, 라몬, 제라르도 신부 등 사제 30명은 미사를 통해 불행이 있는 곳에 희망을 가져오려 합니다. 이들은 모든 것을 서로 나누고 자신을 위해서는 먹을 것조차 소유하지 않으면서 미사 중에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삶의 용기와 힘을 줍니다. 나이 든 사제는 자신의 약은 챙기지 않을지언정 미사를 드리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이곳 사람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미사 예물은 하느님의 선물에 보탬이 됩니다. 베네수엘라 산 카를로스 교구의 사제 30명을 비롯하여 세계 곳곳에서 활동하는 사제 42,000명에게 미사 예물을 전해 주십시오.



#### 여성 수도자

### 기도하고 빵을 굽습니다

제병을 제조하는 것은 누군가의 눈에 띄는 일도 아니고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병을 굽기 위해서는 제대로 작동하는 제빵 기계가 필요합니다.

지속 성체조배의 가난한 글라라 수녀회 소속 수녀들은 방글라데시 북부 마이멘싱에 있는 성 미카엘 봉쇄 수녀원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곳 수녀들은 제병 제조로 생계를 꾸리며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ACN은 5년 전 당시 신형의 제빵 기계와 절단기를 수녀원에 지원했습니다. 수녀들은 처음에 일부 교구에만 제병을 구워 보냈지만, 지금은 방글라데시 전국에 제병을 제조하여 공급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방글라데시의 가톨릭 신자가 증가했는데, 전국민의 0.3%인 500만 명 정도로 집계됩니다. 이에 따라 제병 공급량도 늘어나서 수녀들은 1주

일 내내 매일 7시간씩 성체를 굽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조량이 많아서 기계가 과부하 되고 있는 데다가 방글라데시의 환경상 정전이 잦은 탓에 가지고 있는 모든 기계를 동시에 작동시키기도 어렵습니다. 전열기 등 몇몇 기계의 부품들도 사라졌고, 반죽 교반기도 고장났습니다. ACN은 이곳에 새로운 제빵 기계와 반죽 교반기를 다시금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신앙의 선물에는 약 6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께서 7만 원씩 보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들은 다른 많은 수녀와 마찬가지로 숨은 곳에서 빵을 굽고 기도합니다. ACN은 이처럼 세상의 수많은 수녀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성전 건립

## 하느님의 현존을 위한 공간

성당이 필요하냐고요?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맨땅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 않냐고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베네딕도 16세 교황은 “성체는 응답하는 분이로서 현존하시는 하느님”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처럼 하느님의 현존을 위해서는 성당이 필요합니다.

이는 아직 성전을 세우지 못한 아프리카의 시골 지역 신자들의 생각입니다. 에티오피아 서부 감벨라주 세보 마을은 15년 전에 점토와 목재로 성전을 지어 올렸지만, 최근 흰개미 떼의 공격을 받아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강풍에 초가지붕마저 날아갔기 때문에 미사를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마을 주민 700명은 하루빨리 새 성전을 지어 함께 기도하고 미사를 봉헌하고 싶어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린이 교리학교와 청소년, 청년들을 위한 신앙 강의도 열어야 합니다. 이곳은 에이즈 감염 환자가 많기 때문에 ‘몸의 신학’ 강의도 개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 그리스도인의 수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느님의 현존을 진

심으로 느끼기를 원합니다. ACN이 이들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새 성당은 높이 14m, 너비 8m 규모의 석조 건물로 지어질 예정이며, 건축 비용으로 1㎡당 3만 5천 원이 듭니다. 이곳은 후원자 여러분의 도움으로 세계 곳곳에 세워진 수많은 지역의 성당과 마찬가지로 마을의 중심점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 운송 수단

## 신앙을 위한 전기자전거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이는 우리가 어서 달려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우리가 이 목표를 달성한다면 비로소 안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성 아우구스티노

쿠바 산타클라라 교구의 프란치스코 수녀회와 카푸친수녀회 소속 수녀들은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 정말로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쿠바에서는 자동차를 구하기가 너무 비싸고 도로 사정도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녀들이 활동하는 지역은 수녀원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수녀들이 정기적으로 이곳을 방문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의 영혼은 메말라 버릴 것이고 지역 곳곳의 성당도 쇠퇴해 버릴 것입니다. 수녀들은 오직 두 발로 먼 길을 걸어 다니거나 당나귀가 끄는 수레를 타고 가면서 종종 길바다 위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산타클라라 교구장 마르셀로 아르투로 곤살레스 아마도르 주교는 수녀들을 위해 전기자전거를 구입하는 것이 해결책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쿠바에서 전기자전거는 쓸모가 많습니다. 1회 충전 시 시속 50km 속도로 80km를 달릴 수 있으며, 움푹 팬 길을 쉽게 우회할 수 있고 당나귀 수레보다 빠른 데다가 두 사람이 같이 타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전기자전거를 원해 왔

던 아르투로 주교는 선교 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산타 클라라에서 활동하는 카푸친수녀회 수녀 3명은 전기자전거가 있다면 도시 변두리에 있는 유치원을 더 자주 찾아가서 한부모 가정 어린이들을 돌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구아 라 그란데에서 일하는 프란치스코 수녀회 수녀들은 지금보다 두 배로 많은 성당과 선교 지역에서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르투로 주교의 기도 쪽지에는 전기자전거 5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쿠바에서 전기자전거 1대를 사는 데는 약 270만 원이 필요합니다. 아르투로 주교와 수녀들에게 신앙의 선물을 전해 주실 분이 있습니까?





신학생 양성

##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신 다음, 당신께서 원하시는 이들을 가까이 부르시니 그들이 그분께 나아왔다. 그분께서는 열둘을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라 이름하셨다. 그들을 당신과 함께 지내게 하시고, 그들을 파견하시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며, 마귀들을 쫓아내는 권한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마르 3,13-15)

우크라이나 서부 이바노프란키우스크의 그리스 가톨릭 신학교인 성 요사팍 신학교에는 언제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르고자 하는 청년 195명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평생 신앙의 사도로 일하겠다는 지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 요사팍 신학교는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큰 신학교로 5개 교구에서 신학생들이 입학하고 있는데, 수업 연한은 6년이며 기도와 학업을 주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곳 신학생들은 매일 아침 7시에 아침 기도와 미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밤 9시에 영적 독서로 일과를 마칩니다. 신학생들은 하루 동안 강의와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의 시간 전례, 침묵 기도, 스포츠, 성가 연습, 독서, 학습, 연구 등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이러한 일과는 장차 사제로서 살아가는 데 적합한 리듬을 찾는 일에도움이 됩니다. 신학교 교육은 지적, 영적, 인간적 도전이며 근본적인 교육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제로 산다는 것은 세속화된 현대 사회에서 결코 쉽지 않은 일이

기 때문에 신학생 때부터 확고한 기반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질적으로 높은 교육을 하는 데는 비용이 듭니다. 지방세와 급여, 교통비, 생활비 등을 포함한 신학교의 한 해 운영 비용은 5억 원이 넘습니다. ACN은 그중 일부를 지원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의 경제 위기가 이어지면서 전기세, 수도 요금, 가스비와 전반적인 생계비가 올라 겨울을 나기가 다시금 힘들어졌습니다. ACN은 성 요사팍 신학교의 모든 신학생에게 한 사람당 매월 7만 원씩, 1년에 총 8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곳 신학생들은 봉사하기를 원하고 언제나 예수님 곁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서 보내 주시는 신앙의 선물로 이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 신학생들이 사제로 파견되면, 그리스도의 산증인이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화해

## 마음을 열고 사랑을 쌓아 나갑니다

“소수자를 존중하면 평화가 옵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1989년에 평화의 메시지로 남긴 이 메시지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성 요한 바오로 2세 청년사목센터’의 표어입니다.

수도 사라예보에 있는 성 요한 바오로 2세 청년사목센터에서는 이 표어에 따라 1년 내내 여러 행사와 회의를 개최합니다. 우선 자원봉사자 300명이 이곳에서 영적 목상을 하며 청년 5,000명이 연중 센터를 찾아와 전쟁과 위기, 증오와 폭력을 해소하는 사랑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또한, 가톨릭교회와 정교회 신자들은 교회 일치 여름 캠프에서

자신의 편견을 버리고 다른 교파의 전례적 특성을 존중하는 법을 배웁니다. 종교 간 세미나에서도 이러한 가치를 추구합니다. 이 세미나를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종교적 차이를 넘어 인간적 유대를 쌓는 법을 이해합니다. 또한, 이곳의 음악 축제인 ‘마리아 축제’에서는 수백 명의 젊은이가 참가해서 풍부한 감성을 나누고 서로 하나되는 경험을 합니다. 이로써 사랑을 쌓아 나갑니다. 다른 이를 존중하고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사람들 사이에 놓인 간극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무한한 사랑의 힘을 믿는다면 용서하는 힘도 가질 수 있습니다. ACN은 이 청년사목센터에 3300만 원을 지원하려 합니다. 3만원, 7만 원 또는 10만 원까지 원하시는 만큼 화해를 위한 활동을 하는 이 센터에 선물해 주십시오. 여러분께서 주시는 신앙의 선물을 통해 젊은이들의 마음이 열릴 것입니다.



# 후원, 사랑 그리고 감사를 전하는 편지

## 목자와 양떼를 위한 기부

우리 목자들과 양떼들을 위해 작은 기부금을 드립니다. 나이지리아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힘과 사랑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밖에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이들의 마음을 밝혀 주시고 사랑으로 채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느님께서 이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 확실한 증거

2018년도 ACN 활동 보고서를 보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움의 손길을 뻗어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ACN의 활동에 놀랐고 또 감동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우리 하느님이 사랑이시며, 이 사랑은 많은 이를 통하여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을 보여 주고 계십니다.

**오스트리아 장크트펠덴교구장  
알로이스 슈바르츠 주교**

## 마음이 파스해지는 소식들

저는 언제나 ACN이 하느님의 은총에서 영감을 받고 있고, ACN에게 기부하는 모든 것은 그 금액이 적든 많은 간에 하느님의 포도밭을 일구는 ACN의 활동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한다고 믿어 왔습니다. 제가 <사랑의 메아리>에서 특히 반갑게 읽었고 기도의 삶에 새로운 힘을 얻게 된 소식은 여러 젊은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여름 캠프, 우크라이나의 젊은 수련 수녀들, 세계청년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벨라루스에서 파나마까지 간 젊은이들, 이 모든 이야기가 저에게 참으로 유익했습니다.

## 한국 후원자 여러분의 편지를 기다립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80 가톨릭회관 337호 (04537)  
메일: info@churchinneed.or.kr  
휴대폰 문자: 010-7475-6440

## 하느님 자비의 손길

ACN은 하느님 자비의 힘 있는 손길입니다. 우리가 사랑과 신뢰로 기부하는 작은 돈으로 영혼과 생명을 구할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입니다.



## ACN 한국지부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ACN 한국지부는 2019년 11월 2일과 3일 서울대교구 대림3동성당, 11월 16일과 17일 수원교구 매곡성당, 12월 7일과 8일 서울대교구 개포동성당을 방문하였습니다. ACN 한국지부장 박기석 사도요한 신부와 함께 세계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지원하는 ACN의 역사와 활동 그리고 이번 대림·성탄 캠페인 '신앙의 선물'에 대해 설명하고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많은 교우 여러분께서는 ACN 활동에 크게 공감해 주시며 온정의 손길을 보내 주셨습니다.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김영철 시메온 신부님(서울 대림3동본당 주임), 김태완 바오로 신부님(수원 매곡본당 주임), 오승원 이나시오 신부님(서울 개포동본당 주임) 그리고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모든 교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하느님 사랑과 자비!

교황청 재단 「고통받는 교회 돕기 한국지부(ACN Korea)」의 박기석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아낌없이 후원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소슬바람에 다솜 했던 가을의 끝자락을 보내며 겨울의 문턱을 넘습니다. 마지막 한 장 남은 '12월' 달력 앞에서 훌연히 스쳐 지나간 날들을 성찰하며 여러 아쉬움들 앞에 불현듯 멈추는 것이 결코 저 혼자만의 아닐 것입니다. 본래 '달력'을 뜻하는 영어 단어 캘린더(Calendar)의 어원은 라틴어 칼렌다리움(Calendarium)이라고 합니다. '회계장부', '빛 독촉'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지요. 고대 로마에서는 채무자가 매월 초하루에 이자를 갚았다고 합니다. 갚아야 할 빛이 많은 사람은 회계장부를 한 장, 한 장 넘기고 새로운 달을 맞이할 때마다 뭉개어 찢기는 듯한 기분을 지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신앙적으로 본다면 그 무엇보다 하느님을 우선 사랑했기에 대한 내적 채무는 매주 하나씩 새롭게 밝히는 진보라, 연보라, 분홍색, 하얀색의 대림초등에 비추어 고해성사(대림 판공 성사)를 통해서 갚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는가에 대한 외적 채무는 성탄과 연말에 가난한 이들에 대한 돌봄으로 갚을 것이라며 애써 스스로 위로합니다. 그리고 쫓기듯 살며 빛을 겨우 갚은 채무자로서 가쁜 호흡 달래며 새 달력 앞에서 알차게 살아보겠다는 알뜰한 다짐을 하겠지요. 흘러가는 시간의 숫자들로 채워지지 않고 의미 있는 삶으로 하루하루를 충만케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그분과 함께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불리한 조항들을 담은 우리의 빛 문서를 지워 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가운데에서 없애 버리셨습니다.” (콜로 2,13-14)

그렇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 신앙인의 빛 문서를 지워버리시는 하느님의 용서는 한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사실 마태오가 전해주는 '주님의 기도' 중 “저희에게 잘못된 이를 저희도 용서하였듯이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마태 6,12)의 '잘못'을 가리키는 희랍어 본래의 말은 '빚-채무'(오펠리에마 ὀφείλημα)입니다. 이렇듯 '잘못'에 관해서라면, 우리 모두는 언제나 빚진 자들입니다.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외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완성한 것입니다.”(로마 13,8)

사랑하고 존경하는 「고통받는 교회 돕기(ACN)」 후원자 여러분!

우리가 갚을 영적 빚을 대신 지불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른 종교적 견해나 신념에서 비롯된 무서운 폭력과 무관용 행위의 고통 속에서 삶의 터전과 소중한 생명을 빼앗긴 같은 믿음의 형제자매들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들의 지원이 멈추면 그들은 기아에 허덕이고 삶의 수단을 위해서 성경책 대신 총을 쥐게 됩니다. 특별히 모두가 예외 없이 따스한 축복을 간절히 바라는 대림과 성탄 시기에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변치 않는 선물을 주십시오.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우리들의 물질적인 나눔이 그들에게는 신앙의 선물이지만 역으로 고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들의 믿음이야말로 오히려 우리에게는 참으로 신앙의 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나온 날들 안에서 빛진 것을 갚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주어질 날들에 아무에게도 빚지지 않겠다는 굳건한 다짐에서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후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청하며 후원자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CN 한국지부장 박기석 사도요한 신부

### 2019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2019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의 고통받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주님의 따뜻한 손이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후원금은 2020년(2019년 귀속) 연말정산 시 기부금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유형: 기부코드 41번(종교단체 지정기부금)

안내링크: <http://bit.ly/2019donation>

ACN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회원정보에서 기부자의 ①이름,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를 꼭 확인해 주세요! 개인정보 확인 또는 수정이 완료된 경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등록됩니다. (자동등록기간: 20년 1월 3일까지)